

■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차이, 불평등, 단절: 상호문화성의 지도 그리기』

Néstor García Canclini, 2004. *Diferentes, desiguales, desconectados: mapas de la interculturalidad*. Barcelona: Gedisa.

김 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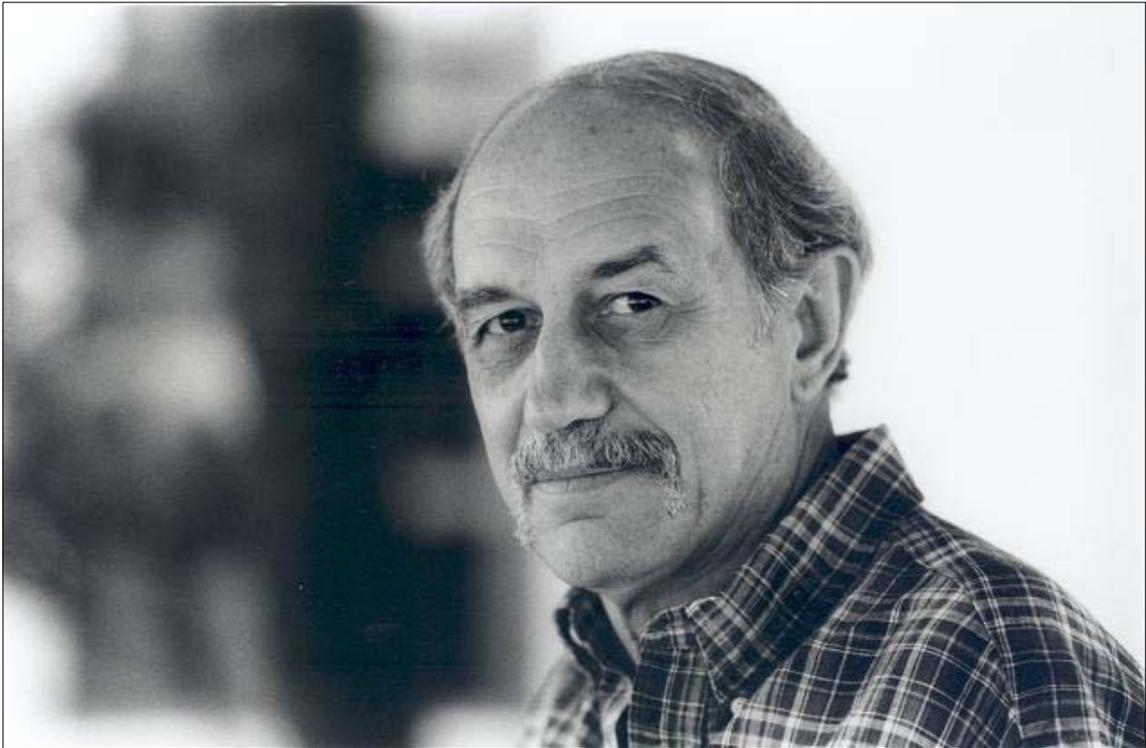
오늘날 사회과학이 당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비판이론이란 현실(現實)을 드러난 것만으로 환원하지 않는 이론을 뜻한다.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실은 드러나는(現) 동시에 숨는(實) 것이어서,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현실은 잠재적 가능성의 장(場)이며, 이론의 임무는 잠재적 가능성의 장에서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러난 것으로 현실을 한정짓는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비판이론이 이미 또 다른 비판과 대안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드러난 것을 현실의 전부라고 인정할 때 느끼는 거북함, 부조화 혹은 부당함은 드러난 것과 숨은 것 사이의 불일치의 긴장에서 비롯되며, 비판이론은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올리히 벡이 “위험사회”라고 칭할 만큼 현대인의 삶에는 거북함, 부조화, 부당함의 느낌이 팽배해 있다. 이런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이 내세운 약속들이 어느 정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근대성의 성취가 얼마나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에서 이런 위험사회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비판이론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적 비판이론은 사회를 총체성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를 대체하는 총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식 형태가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원리로 전제되었으며,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유일한 집단적 주체가 전제되었다.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총체적 지식은 규범적 질서를 통해 숨은 것을 모두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근대적 비판이론은 통제기구의 합리성을 불신하고 규범적 질서의 권위로부터 현실을 해방시키려고 시도하지만, 비판이론 역시 총체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규범적 질서로 추락할 위험성에 노출된다. 푸코는 훈육사회로부터 통제사회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근대적 비판이론의 패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통제사회는 훈육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사회 전체에 내면화된 사회이다. 근대과학에 의해 주변화되고, 억압되고, 불신 받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보여준 푸코의 작업으로 비판이론은 탈근대적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규범적 질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내면화된 대안적인 규범적 질서의 권력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푸코 역시 근대적 비판이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늘날 사회는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다. 분과학문적 사회학에 의해 무시되었던 다문화주의는 가상의 보편주의나 총체성을 향해 의구심에 찬 시선을 던진다. 페미니즘 이론, 젠더 연구, 반인종차별주의, 탈식민성 연구 등이 현실을 포착하는 새로운 지식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으로 떠오른 것은 이런 맥락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연구를 통해 본격화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이 수렴의 지점을 모색하는 범학문적 혹은 학제간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에 대한 긍정은 탈근대적 비판이론의 핵심으로 등장했으며 논쟁의 전위에 위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멕시코에 거주하며 도시인류학을 연구하는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차이, 불평등, 단절: 상호문화성의 지도 그리기』 (이하 『차이, 불평등, 단절...』로 표기)에서 다문화주의를 새롭게 검토한다. 『차이, 불평등, 단절』은 드러난 것과 숨은 것 사이의 불협화음에 귀 기울이며 잡(雜)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차이, 불평등, 단절』은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시하지 않는다. 차이도, 불평등도, 단절도 잡한 현실에 규범적 질서를 부여하는 아이콘(icon)이 아니다. 탈근대적 비

판이론의 전반적인 추세에서 불평등은 비판이론이 상대해야 할 가장 강력한 공동의 적이다. 여성이나 주변화된 문화가 자신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인정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제거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차이에 대한 옹호를 목표로 하되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20세기를 지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내적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차이, 불평등, 단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잡한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사이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이와 불평등 그리고 단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며, 현실을 포착하는 이 세 가지 양상이 상보(相補)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사회는 순(純)하지 않고, 이론도 단일하지 않으며, 주체 역시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이런 태도에는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으로 넘어가는 선구자적 결기가 서려 있다.

『차이, 불평등, 단절』에서 느껴지는 저자의 어조는 차분하다.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그의 주장이 충격적이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 『혼종문화 Culturas híbridas』 (1989)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와 시민 Consumidores y ciudadanos』 (1995)를 거쳐 『상상된 세계화 La globalización imaginada』 (1999)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토대에는 세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근대성의 의미와 가치가 불확실한 것은 국민, 종족, 계급의 차이 때문이며, 또한 사회문화적 장에는 전통

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근대화는 외부로부터 강제된 힘에 의해 전통과 고유성이 근대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적 이질성”(heterogeneidad multitemporal)의 관점에서 현실을 새롭게 혁신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문화적 이질성의 연구는 문화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혼종화(hibridación)는 자유주의적 제도, 권위주의적 아비투스, 민주적 사회운동 사이에 작용하는 횡단적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장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차이, 불평등, 단절』에서 이러한 전제들의 준거로서 인류학자인 기어츠, 사회학자인 부르디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볼탄스키(Boltanski)와 치아펠로(Chiapello)의 이론을 참조한다. 기어츠에게서 문화가 불변하며 내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면, 부르디외로부터는 사회가 개인이나 집단들의 무질서한 집합체이거나 계급들의 위계화된 피라미드이기보다는, 상호작용 속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차원들이 절합된 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볼탄스키와 치아펠로를 통해서는 정보사회와의 접속/단절의 개념을 문화정치의 중요한 축으로 인용한다. 세계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접속/단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문화자본을 억압하는 경제자본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그가 갖는 문제의식은 ‘어떤 종류의 문화적 실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종류의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이 문화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그가 제시하는 대답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전지구적 시장을 장악한 중심부 국가들과 풍요로운 문화적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취약한 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더 평등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

이다. 그의 대답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상호문화성에 대한 접근방식 혹은 '발전의 문화생태학'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과 개념을 통해서 인류학, 경제학, 정치적, 사회학, 세계체제론을 가로지르는 적극적인 탈근대적 비판이론을 생산하려고 시도한다.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 Le Nouvel Observateur》가 2005년 세계 25인의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저작들이 도서를 분류하는 사서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대안적 비판이론에 대한 모색이 아니라 비판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이 가르시아 칸클리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은중 - 국립멕시코대학교(UNA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역서로는 『흙의 자식들, 외』 등이 있다.
